

백제 후기 능묘와 능원의 특성

김용성

(재)한빛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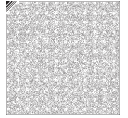
국/문/초/록

백제의 능묘는 금강유역으로 천도 후 송산리식의 황혈식석실묘 → 남조식의 전실묘 → 능산리식의 황혈식석실묘로 변천하였다. 이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천장 구조의 변화이다. 천장은 궁륭천장(송산리식) → 터널천장(전실묘와 능산리식 과도기) → 집지붕천장(능산리식으로 제형, 삼각형, 평천장 세 아류의 형식)으로 변천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능산리식 황혈식석실로 이는 백제에서 창출된 특수한 형식이다. 백제의 능묘는 봉분을 중시하지 않아 현저하지 않았다. 이는 개별 능묘를 과시하여 표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능원의 영역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고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백제의 능원은 백제가 남천한 후 왕가의 능원에서 단독의 독립능원으로 변천한다. 전자는 송산리와 능산리의 능원이고, 후자는 익산의 쌍릉이다. 전자는 완벽한 풍수지리와 함께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중국이 재통일된 수와 당초의 능원제 영향이다. 왕가의 능원에는 왕릉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인물을 매장하였다. 그리고 능원에는 제의시설이 존재했다. 송산리 능원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조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능산리 능원에는 공동의 능묘에 대해 제의를 시행할 수 있는 노천의 제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 제의를 담당하면서 선왕에 대한 명복을 빌기 위한 능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나 구조는 신라의 서약동 능원과 아주 유사하다.

주제어 송산리, 능산리, 쌍릉, 능묘, 능원, 서약동

투고일자 : 2014. 02. 28 | 심사일자 : 2014. 04. 11 | 게재확정일자 : 2014. 05. 14



머리말

왕릉은 왕을 매장한 무덤으로 특별히 축조한 거대한 기념물이며 왕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21)로 인식된다. 그리고 능원은 왕릉과 이를 둘러싼 여러 시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왕릉을 포함한 복합형무덤건축(김용성 역 2006: 56)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원은 능장 등 가시적인 구획시설로 구분되기도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의 왕릉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연구도 연대 부여 등을 위한 왕릉 자체의 구조에 매달린 경향이 있다. 즉 묘제와 그 구조 등에 매달려 특히 능원이 가진 전체적인 문화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왕릉이 포함된 능원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지형적 조건, 무덤의 배치 형태, 제의시설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조건과 형식, 시설 등은 시대의 사조에 따라 변화했을 것이고, 그것의 파악은 왕릉을 통한 당시 문화상의 이해에 많은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백제 능묘⁰¹의 특성 부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능원의 파악이라는 관점이 더 필요할 듯하다. 그렇다고 능묘 자체의 분석이 무시되어서는 제대로 된 결과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기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묘나 능원의 파악에는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의 능원과 그 변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하는 백제 웅진기 이후는 특히 백제와 남조의 밀착이 심화된 시기이고, 사비기 후기는 수당시기에 해당되어 상호간의 접촉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밀착과 접촉에서 백제는 중국 문물을 지속적으로 유입하였을 것이고, 그 시대사조에 따라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받아들여져 사생관과 세계관도 변화했을 것이다. 또 이에 수반하여 능묘와 능원이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먼저 백제의 능원과 능묘를 지금까지 연구되어 나누어진 도읍시기별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백제의 고분 연구는 한성기, 웅진기, 사비기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어 백제 후기에 해당하는 공주 송산리의 능원과 부여 능산리의 능원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백제 말기의 무왕릉으로 익산 쌍릉이 지적(이남석 2002: 247~273; 최완규 2001: 77~100)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능원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여기에 사용된 주된 자료로는 일제강점기의 조사(關野貞 1915; 關野貞·黑版勝美 1915; 梅原末治 1938; 野守建 外 1935; 野守建·小川京吉 1920)와 무령왕릉(문화재관리국 1973), 그리고 이들에 대해 근래에 연구로 검토된 것(강인구 1977; 이남석 1995, 2002; 최완규 1997, 2001)을 활용한다. 다음 백제의 웅진기와 사비기에 대응하는 신라의 중고기⁰²를 전기의 서악동 능원, 후기의 진평왕릉(전현덕왕릉) 등 독립된 왕릉으로 나누어 능원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김용성 2012; 김용성·강재현 2012)을 주된 비교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여기서 파악된 백제의 능원에 나타나는 특징을 잡아 이를 주로 신라와 비교하면서, 그 연원 등을 중국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함으로써 백제 후기 능묘와 능원의 특성을 드러내 보도록 한다.

웅진기와 사비기의 능묘와 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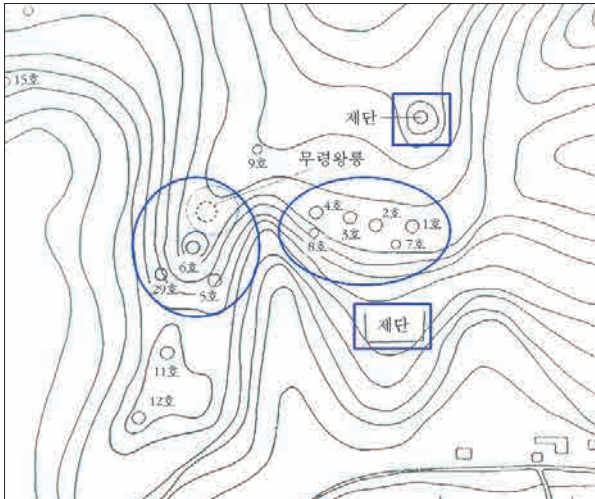
1. 송산리 능원

송산리 능원 <그림 1>은 해발 130m의 송산을 북에 두고 그 남사면에 좌북조남의 방향으로 능묘가 조성되었다. 중앙

01 이 글에서 능묘는 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신분을 가진 인물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02 백제 한성기의 능원은 불행하게도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부분 소멸되어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제외한다. 또 실제 백제의 웅진기는 신라의 마립간기와 겹치나 마립간기의 능원제도는 백제 웅진기, 사비기의 것과 유사성이 크게 없어 중고기를 대상으로 비교한다.

의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그 동쪽과 서쪽에 짧게 능선이 뻗고 있으며 그 사이에 능묘가 조성된 셈이다. 이러한 형국은 풍수지리에 합당한 지형으로 보고 있다(강인구 1977: 24~25).



【 그림 1 】 송산리 능원의 능묘와 제의시설 (이훈 2013을 개변)

능원 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3기의 능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제대로 알려졌으며 주요한 능묘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강인구 1977; 이남석 1995, 2002)에서 이 능묘군의 묘제는 대략 석실묘에서 전실묘로 변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이 확실한 무령왕

릉이 전실묘인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2기의 전실묘와 6기의 석실묘가 이 능원의 중심 능묘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왕릉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7호와 8호 석곽묘는 동측군 석실들의 배장묘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무령왕릉의 전면에 배치된 6호 전실묘와 5호와 29호 석실묘의 경우는 그 피장자가 무령왕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본 의견(이남석 2002: 205)을 받아들이면 무령왕릉의 배장묘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2기의 석실묘는 비록 비교적 규모가 커 앞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1~4호 석실묘와는 차이가 별로 없으나 바닥에 벽돌을 사용하는 등 전실묘의 색채가 일부 보이고 있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무령왕릉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차등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무령왕 이전의 왕들이 모두 천수를 누리지 못했고, 무령왕에 이르러 중흥의 기틀이 마련되고 왕의 위세를 되찾았던 것(권오영 2005: 72)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주인공이 확실한 무령왕릉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측 능선에 분포하는 석실이 무령왕 이전의 왕이나 그 가족의 능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4호 석실묘 가운데 무령왕의 선대 왕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누구의 능인가는 문제가 되나 그 대상으로는 문주왕(477년 몰), 삼근왕(477년 몰), 동성왕(501년 몰)이 될 것이고, 무령왕이나 동성왕의 부로 알려진 곤지의 묘 역시

【 표 1 】 송산리 능원의 능묘 현황

고분	봉분(m)	주체시설					
		묘제	현실 크기(m)	천장	연도	축재	바닥
1호	?	석실묘	2.58×1.77	궁륭	우편	할석	자갈+판석
2호	?	석실묘	3.33×2.79×3.12	궁륭	우편	할석	
3호	?	석실묘	3.37×2.75×2.6	궁륭	우편	할석	
4호	?	석실묘	3.45×3.5×2.8	궁륭	우편	할석	
5호	?	석실묘	3.45×3.26	궁륭	우편	할석	벽돌, 관대?
6호	?	전실묘	3.7×2.24×3.13	터널	중앙	소전	벽돌, 단관대
29호	?	석실묘	3.4×2.84	궁륭?	우편	할석	벽돌, 복관대?
무령왕릉	20내외×20이상 호석사용	전실묘	4.2×2.72×3.14	터널	중앙	소전	벽돌, 복관대



그 대상이 된다.⁰³ 이렇게 본다면 이 능원의 동쪽 능선에 자리한 능묘의 경우 대략 5세기 후반과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이 되고, 무령왕릉을 위시한 서쪽 능선의 능묘는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이 된다. 또한 이들 능묘가 모두 왕이나 왕족의 무덤이 되어 이 능원 전체가 백제 웅진기의 공동 능원이며 왕가(王家)의 능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능원에서는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적석유구로 알려진 것으로 하나는 1~4호 석실이 있는 동측 능선의 전면에 있는 석축시설(A지구)이고, 하나는 그 능선 후면 상부에 계단식 적석총과 같이 축조된 시설물(D지구)이다. 후자는 허묘 혹은 가묘(윤근일 1988: 307~336)로 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개로왕을 위한 가묘(조유전 1991: 56)로 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송산리 능원은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 이후의 웅진기 왕릉과 그 가족의 묘인 배장묘로 구성되었고, 능묘는 대략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순차적으로 축조되었다. 배장묘는 왕릉의 전면에 배치된 특징이 있고, 본격적인 봉분의 조성은 무령왕릉에서 이루어졌다. 능묘의 후면과 전면에는 제의를 위한 단류의 축조물을 설치하였다.

2. 능산리 능원



【그림 2】 능산리 능원

능산리 능원(그림 2)은 반월형인 부여 나성의 동쪽 성벽 바로 밖에 위치한다. 이곳은 산성이 위치한 청마산의 남향 사면 말단에 해당하고, 능묘는 군집을 이루며 사면에 좌복조남의 방향으로 조성되어 풍수에 적합한 입지로 인식되고 있다. 나성과 능묘군의 사이에는 능사가 자리하고 있다. 능원에서는 모두 8기의 능묘가 확인되었다. 이 능묘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능묘 가운데 7호와 8호는 사용된 석재나 크기에서 다른 능묘보다 하등으로 볼 수 있어 왕릉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

【표 2】 능산리 능원의 능묘 현황

봉분의 크기는 강인구(1977)의 견해를 따름

고분	봉분(m)	주체시설					
		묘제	현실 크기(m)	천장	연도	축재	바닥
동하총	27×2 이상 자연석 호석	석실묘(벽화)	2.50×1.12×1.22	평천장	중앙	판석 수마	모전석 복관대
중하총	30×2 이상	석실묘	3.21×1.98×2.15	터널	중앙	장대	모전석
서하총	20×2 정도	석실묘	2.85×1.25×1.5	제형	중앙	판석	판석
서상총	25×2.5 정도 자연석 호석	석실묘	?	제형	중앙	판석	판석
중상총	30×2 정도	석실묘	3.25×1.45×1.58	제형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동상총	21×?	석실묘	3.25×2.00×2.11	제형	중앙	판석	판석, 복관대
7호	?	석실묘	2.79×1.25×1.42	제형	중앙	장방 판석	판석
8호	?(동하총 배총)	석곽?	1.74×0.76×0.9	평천장		장방 판석	전석관대

⁰³ 이남석(2002: 235~243)은 송산리 능원이 무령왕과 관련된 가계의 매장지역이고, 무령왕과 상대적으로 가계상 거리가 있는 문주왕과 삼근왕, 혹은 동성왕의 능은 다른 곳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독립된 능원이 존재한 것이 되어 백제 능원제도의 발전상과 배치된다. 만약 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령왕릉이 전대의 능묘군집과 구별되는 곳에 축조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큰 봉분을 갖추고, 배장묘가 다수 배치되는 등의 현상은 웅진 천도 후 무령왕대에 흥성하여 웅대한 왕이 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연구도 송산리 고분군의 각 피정자는 웅진기 왕과 왕실 관련 인물로 보고 있다(이훈 2013: 17).

은 6기인데, 이 가운데 중하층, 중상층, 동상층의 현실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커 일단 왕릉의 대상이 된다.

어떤 것이 누구의 왕릉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천장구조⁰⁴가 티널 모양에서 집지봉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에서 보면 중하층이 이르고 동상층과 중상층이 낮은 것이 되어 중하층이 부여로 천도한 첫 왕인 성왕(554년 몰)의 능(강인구 1977: 89; 이남석 2002: 245)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때는 능묘가 아래에서 위로 축조되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능묘의 배치상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능묘군은 아래 동측의 동하층, 중하층, 8호를 한 그룹으로, 위열의 중상층과 동상층을 한 그룹으로, 서측의 서하층과 서상층을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동하층, 중하층, 8호의 그룹은 모두 모전석이 사용된 특징이 있다. 이것이 시기적인 속성이라면 능묘의 세분된 군집은 다시 동에서 서로 가며 축조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그룹의 규모 등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왕릉과 그 배장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배장묘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능묘의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 귀족이 아닌 왕족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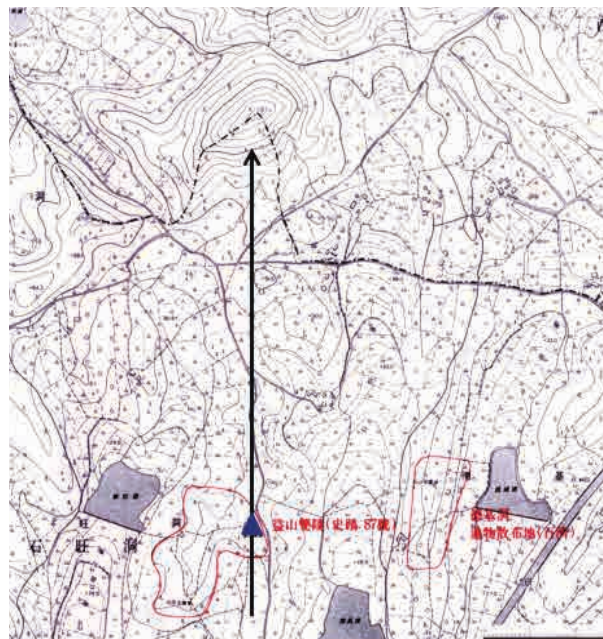
이 능묘군의 동쪽에는 능산리 동고분군(梅原末治 1938)으로 알려진 고분군이 일제강점기에 확인되어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동쪽으로 약간 먼 지점에 능안골고분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이 분포한다. 이 고분들은 왕족의 방계나 귀족의 묘가 군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능산리 동고분군의 고분은 그 규모나 구조적 특성에서 능산리 능원 내부의 배장묘로 볼 수 있는 것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능산리 동고분군은 별도로 조성된 배장묘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능산리 능원은 중심에 왕릉과 왕과 비교적 가까운 왕족의 능묘를 군집시켜 조성하였고 능묘는 아래에

서 위로, 동에서 서로 가며 소군집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이들 능묘의 전면에 배례공간을 두었다. 또 전면을 향한 우측에 제의를 담당하고 선왕의 명복을 빌었던 능사를 설치하고, 좌측에 방계의 왕족이나 귀족의 묘인 배장묘를 군집시켜 배장구를 설정한 것이 된다.

3. 익산 쌍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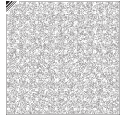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북쪽의 대왕릉과 남쪽의 소왕릉이 조사되어 백제 왕족의 능묘로 확인되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왕릉은 백제 무왕릉, 소왕릉은 왕비의 능으로 비정되어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그림 3】 익산 쌍릉의 입지

쌍릉 <그림 3>은 북 후면에 오금산성이 있는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전면에 펼쳐진 야트막한 구릉상에 위치하고

⁰⁴ 이남석(1995: 199~217)은 백제 황혈식석실의 천장구조를 네벽조임식, 궁륭식, 티널식과 아치식, 고임식과 수평식, 맞배식, 조임식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 변화를 살폈다. 그리고 최완규(1997: 138)는 궁륭상, 네벽조임식, 단벽조임식, 티널형, 괴임식, 맞배식, 평천장으로 나누었다. 이중 능묘급에는 궁륭식, 티널식, 고임식, 수평식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네벽조임식과 단벽조임식은 능묘의 주된 형식의 이류로서 축제와 축조기술의 문제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임식과 맞배식은 모두 집지봉 모양을 한 것으로 맞배식은 고임식을 본 떠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능묘급에서는 맞배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백제 능묘의 천장을 궁륭천장, 티널천장, 제형천장(집지봉 모양으로 현실 측면을 제외한 천장의 단면이 제형을 이루는 것), 평천장(제형천장에서 사방향의 사면을 생략한 것)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외 백제에는 제형천장을 변형하고 축약시킨 삼각형천장이 있다.



【 표 3 】 익산 쌍릉

고분	봉분(m)	주체시설					
		묘제	현실 크기(m)	천장	연도	축재	바닥
대왕릉	30×5 (호석열)	석실묘	3.80×1.78×2.27	제형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소왕릉	24×3.5 (호석열)	석실묘	3.20×1.30×1.70	제형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있다. 쌍릉이 자리한 구릉은 주변의 평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비고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고지이다. 쌍릉에서 정북으로 약 900m에 동서로 뻗는 산지의 서남단 봉우리(해발 97m)가 위치하여 대왕릉은 이 봉우리를 기준으로 정남에 위치하는 셈이다. 따라서 대왕릉은 비교적 먼 곳에 산지를 두고 그를 배경으로 평지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대왕릉과 소왕릉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왕릉이 북쪽에 자리하고, 왕비릉이 남쪽에 자리하는 점에서 왕비릉은 배장적인 성격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쌍릉 능원은 백제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하나뿐인 독립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묘제 등은 능산리 능원의 능묘 것을 그대로 이어왔으나 능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 시행된 것이 된다. 봉분이 남아 있는 두 능만 조사되어 능원의 상세한 형식 등을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더 진전된 조사가 시행되면 주변에서 다른 매장묘나 능원시설 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능묘의 변천과 특성

백제 웅진기에는 먼저 한성기의 지방 묘제였던 석실묘(성정용 2011)⁰⁵가, 후기에는 전실묘가 왕실의 능묘로 채택되

었다. 그리고 사비기 능묘는 지속적으로 횡혈식석실묘가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웅진기 전기에 사용된 횡혈식석실묘는 송산리식, 사비기의 횡혈식석실묘는 능산리식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으며 그 구조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다만 장법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축평행장⁰⁶이고 목관장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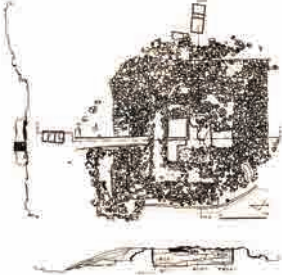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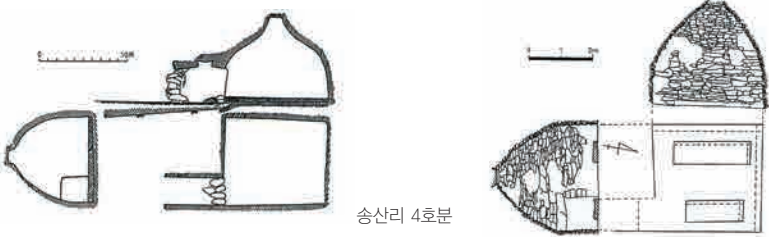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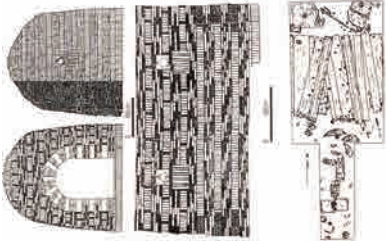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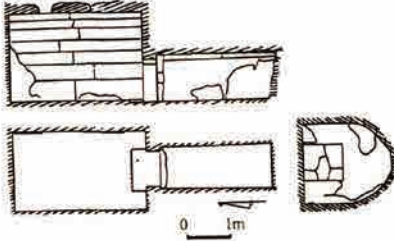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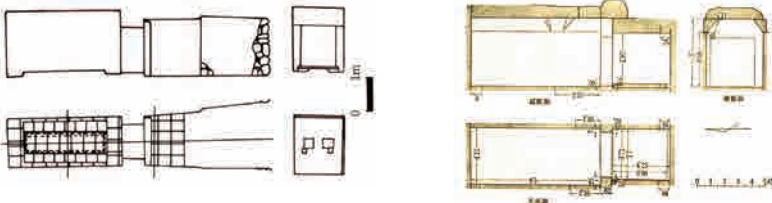
송산리식은 할석으로 쌓은 평면 방형이나 장방형 현실 남쪽의 우측에 연도를 붙이고, 궁륭천장을 덮은 것이다. 현실의 안에는 하나 혹은 두 사람분의 관대가 마련되어 있어 부합장을 의식한 것이다. 이 석실은 한성기 지방의 것과 같이 묘광을 깊이 파고 축조한 지하식이다. 이러한 석실의 사용 직후 백제의 능묘로 사용된 것이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에서 나타나는 전실묘이다. 이 전실묘 역시 깊이 판 묘광에 축조된 지하식이나 현실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중앙 남쪽으로 연도를 단 특징이 있다. 이 전실묘는 중국 남조의 묘제와 너무 닮아 그것이 그대로 이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능산리식의 석실은 묘광을 파고 축조된 지하식이고 입지 또한 유사하다. 고구려의 영향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잘 물갈이한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하기도 하고 정제된 할석으로 축조한 것으로 평면 장방형의 현실 남쪽 중앙에 긴 연도와 묘도를 달아낸 구조이다. 바닥에는 넓직한 돌을 깔고 판석으로 된 관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축재를 바꿨을 뿐 웅진기 전실묘의 평면 구조를 닮고 있어 이를 이어받아 축조한 것으로

⁰⁵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백제의 횡혈식석실이 발견되었고, 적석총인 석촌동 4호분의 매장주체가 횡혈식석실일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조가영 2013). 그러나 우면산의 석실은 그것에 이어서 축조된 것이 신라석실이어서 고구려의 한성 점령기 재지 백제인의 무덤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성기의 석실이라 하더라도 중앙 왕족의 능묘로 보기보다는 주변 귀족집단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석촌동 4호분은 고령묘자 11호 등 석축의 연도를 가진 목실묘도 고려하여야 한다(김용성 2005). 따라서 백제 한성기 중앙 왕족 능묘가 횡혈식석실을 채용했다는 증거로는 아직 문제가 된다.

⁰⁶ 횡혈식석실은 대부분 능선의 주축방향을 따라 아래에 연도를 두어 묘향과 연도 방향이 유사하나, 능선의 주축과 엇갈린 방향으로 연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신라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묘향과 연도의 방향이 같더라도 현실 내부에 그 방향과 엇갈리게 횡으로 시상대를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다. 묘향과 연도의 방향이 같고, 관대나 시상대가 이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것을 주축평행장, 그러하지 않은 것을 주축교차장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 표 4 】 백제 능묘의 변천

묘제(시기)	대표 능묘
기단적석총 (한성기)	 <p style="text-align: right;">석촌동 4호분</p>
송산리식석실 (웅진 전기)	 <p style="text-align: center;">송산리 4호분</p> <p style="text-align: right;">송산리 5호분</p>
전실묘 (웅진 후기)	 <p style="text-align: right;">무령왕릉</p>
형성기 (사비초)	 <p style="text-align: right;">능산리 중하층</p>
능산리 식석실	 <p style="text-align: center;">능산리 동하층</p> <p style="text-align: right;">능산리 서하층</p>



볼 수 있다. 천장은 전실묘에서 이어지는 터널형도 있으나 집지붕 모양을 한 제형 혹은 평천장도 있는데, 터널형(형성기)에서 나머지 형태(전형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백제의 능묘는 도읍지의 변천에 따라 계기적으로 묘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즉 한성기의 기단식적 석총, 웅진기의 송산리식 석실과 전실묘, 사비기의 능산리식 석실의 형성기와 전형기 변천 과정이 아주 명확하다. 즉 백제의 능묘는 5세기 중엽까지 적석총, 5세기 후엽과 6세기 초 송산리식 횡혈식석실, 6세기 전반 무령왕대에 한하여 전실묘, 6세기 후반 이후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이 묘제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송산리식 석실은 한성기의 지방 묘제를 수용하여 정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실묘는 중국 남조 묘제의 이식, 능산리식 석실은 전실묘를 기반으로 하여 축재를 바꿔 백제에서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백제 능묘 가운데 남천 이후의 것을 신라의 능묘와 비교해 특성을 찾아보자. 신라의 왕릉이나 그에 버금가는 등급의 능묘가 발굴되지 않아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고분과 비교하면 백제 능묘의 특성은 지하식의 구조, 봉분이 현저하지 않은 점, 전실묘가 사용된 점, 가형목관을 사용한 목관장, 좌북조남의 능묘 방향, 주축평행장이 전체적인 특징이고, 능산리식의 경우 장방형 평면에 중앙연도식, 잘 다듬은 장대석이나 판석을 사용한 축재, 집지붕 모양의 천장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송산리 6호와 능산리 동하층에서 나타나는 사신도 벽화 역시 신라 영역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백제 능묘가 완전한 지하식으로 축조되었고 현저하지 않은 봉분을 가졌음은 개별 능묘의 표식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능원으로 선조의 능역을 표시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송산리 동측의 능묘가 봉분이 분명치 않음이 그러한 연유일 것이다. 무령왕릉 이후 개별적인 능묘의 봉분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같은 시기 신라의 것과 비교하면 더 작은 것도 그러한 연유로 보인다. 또한 완전한 지하식으로 묘실을 축조하고 높은 봉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중국 남조 묘제의 수용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남

조의 묘제 역시 무덤이 입지할 지점의 산세가 높으면 봉분을 올리지 않았고, 지세가 낮을 때 봉분을 올린 것(권오영 2005: 133)이 확인되고, 묘는 완전한 지하식으로 축조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중에 설명할 가족묘지 전체를 중시하였지 개별 능묘의 표식에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일 터이다.

무령왕릉을 비롯한 전실묘는 신라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전실묘는 남조 양나라의 묘제가 이식된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전실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전후 무렵에 신라의 능묘는 적석목곽묘에서 석실묘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은 백제 고유의 묘제이다. 이 석실은 장방형이라는 평면 구조, 연도를 중앙 남쪽으로 내는 방식이 앞 시기 전실묘와 동일하다. 그리고 본격적인 집지붕 모양 천장 구조를 가지기 전에 과도기로 나타나는 터널형 천장 구조의 능산리 중하층으로 보아 이것이 축재만 바꿨을 뿐 무령왕릉의 구조를 본받아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하층에 사용된 석재가 판석이 아닌 장대석임도 그러한 연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형성기의 능산리식 석실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에 출현하는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은 중하층의 형식에서 천장을 바꿔 집지붕 모양을 채택하였고, 축재도 판석을 이용하였다. 이는 중하층을 거치면서 백제가 그들 특유의 석실을 창출하였음을 알려주는 요소이다.

이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의 창출은 당시 국제 관계, 국내 정세 등과 연동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즉 석재의 채용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데, 성왕의 패사 이후 신라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고구려와는 좀 더 밀착되어 그 문화 요소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석실은 가옥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살아서와 죽어서의 집이 같아야 된다는 사과의 표현일 것이다. 가옥형의 지하에 들어간 석실이 백제 왕족의 사후세계가 된 것이다. 물론 무덤 자체는 죽은 후의 집으로 꾸며진 것이지만 이전 천장은 현실 세계의 것과는 다른 모습이나 사비기

의 가옥형은 현실세계의 집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목관 역시 쌍릉의 목관을 감안하면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가옥형 목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후의 집이라는 관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적석봉토분의 목곽 내부에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찾아진다. 그러나 석실에서는 적석봉토분과 거의 동시기 것에서만 목관의 사용이 확인⁰⁷될 뿐 이후 중앙에서도 석실을 채용한 단계에는 시상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석침, 견좌 등의 시신을 바로 안치하는 시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목관 없이 직접 시신을 안치하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다만 구정동방형분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다시 가형목관이 출현한다.

능산리식 석실의 축재인 잘 다듬은 판석은 고구려의 석실에서는 예가 보이나 신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라의 석실은 대부분 활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잘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한 경우도 신라 하대 구정동방형분에만 보이고, 그 이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잘 다듬은 판석을 설계된 크기로 잘라 무덤을 축조하는 것은 규격화된 석실의 축조법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백제 능묘 축조자가 발달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고 전문적인 능묘 축조 집단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송산리와 능산리의 능묘는 모두 좌북조남의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역시 남조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백제 능묘가 풍수에 따른 지형에서 모두 남향 사면을 택해 축조된 입지와도 관련된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산지에 축조된 석실묘는 방향의 선택보다는 능선의 지형적 조건이 중시되었고, 주축선에 엇갈리게 축조된 것도 있다. 또 현실 내부에 시신의 안치도 백제와 같은 주축평행장도 보이지만 많은 것이 주축교차장이다. 이러한 점들은 동향 또는 남향의 머리 방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지에 축조된 석실과 마립간기 적석봉토분의

경우는 대부분 머리 방향이 더 중시되었다. 이러한 백제의 좌북조남 방향의 특징 역시 중국 남조의 풍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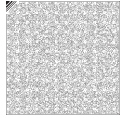
또 하나의 특징은 벽화를 그린 능묘의 존재이다. 신라에서는 아직 중앙부에서 벽화고분이 발견되지 않고 먼 변경인 영주지역에서 고구려계의 벽화가 발견될 뿐이다.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동하층에 그려진 사신도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중국 남조의 영향(권오영 2005: 120~121)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남조에서는 벽화보다는 화상전(畫像磚)을 이어 그림의 주제를 나타내는 병감전화(拼嵌磚畫)가 유행하였는데, 백제의 사신도와 구도가 같은 백호도가 단양(丹陽) 금가촌(金家村)의 고분에서 확인되었다(韋正 2011: 298).

벽화가 발견된 송산리 6호와 능산리 동하층은 모두 배장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전자는 무령왕릉의 배장분이고, 후자는 성왕릉(중하층)의 배장분이 된다. 따라서 이 벽화가 그려진 능묘는 당시 제의를 담당하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인물의 무덤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동하층의 평천장이 훨씬 늦게 등장(이남석 1995: 258)하는 것이 아니라 제형의 천장과 동시기 아류의 형식으로 출현한 것을 알려준다. 특히 동하층과 중하층이 같이 바닥시설로 모전석이 사용되었음이 이 증좌이다. 이러한 순서로 보아야 익산 쌍릉의 제형 천장이 이해된다.

능원의 변천과 특성

백제 능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능원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또 그 능원에 왕가만의 능묘를 군집시켜 배치하는 가족장제를 시행하여 왕가의 능원을 조성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능원은 송산리와 능산

⁰⁷ 예컨대 달성 쌍계리의 석실, 의성 학미리 석실, 포항 대련리 석실의 목관 흔적 등이 그것이다. 이중 달성 쌍계리의 목관은 신라 하대의 구정동방형분과 함께 가형목관으로 복원된다(허일관 2012: 724).



리 능원 모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단독능원을 조성한 것이 무왕릉으로 볼 수 있는 익산 쌍릉에서 관찰된다.

송산리와 능산리에서 풍수지리설을 적용하고 가족장제를 택한 것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보인다(권오영 2002: 133~137). 남조 고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풍수의 적용과 취족이장(聚族而葬)이라고 부르는 가족장제의 선택(羅宗眞 2001: 86)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풍수는 일반적으로 “배의산봉(背倚山峰), 면림평원(面臨平原)”, 즉 분묘는 두 산이 둘러싼 산허리에 있어야하고 앞으로 넓은 평원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어야한다는 것(羅宗眞 2001: 95~96)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송산리와 능산리 능원이 모두 뒤에 주산을 두고 양쪽에 능선이 감싸있는 주산의 남사면에 능묘가 배치되었고, 전면에는 들판이 자리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풍수에 따라 선지된 것임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다(강인구 1977: 21~25).

신라의 경우 풍수에 적합한 곳에 능묘를 배치한 것은 서악동 능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 주산인 선도산의 남쪽 봉우리를 두고 좌우로 뻗는 능선의 사이 중앙 능선에 능묘를 배치한 모습은 바로 풍수를 염두에 둔 선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의 두 능원은 모두 방향도 좌북조남을 택해 중국 남조의 풍수 입지를 그대로 따랐으나 신라 서악동 능원은 방향이 좌서조동으로 다르다. 이는 서악동 능원의 경우 완벽한 풍수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데, 이 경우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지형만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신라의 서악동 능원은 아직 그들이 생전에 살았던 왕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서 풍수의 지형에 적합한 곳을 찾아 왕릉을 조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악동 능원이 적석봉토분 이래의 계세사상도 고려하여 선지된 것 과도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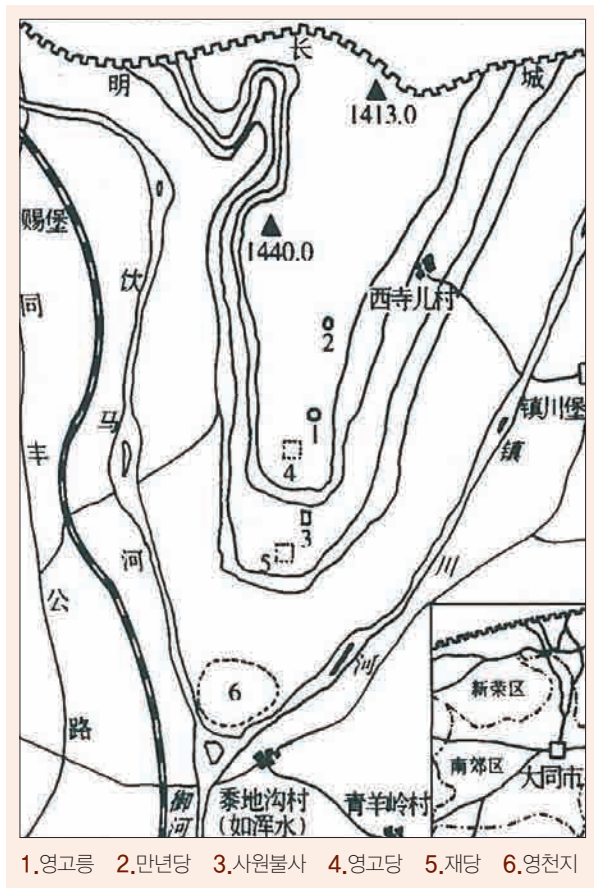
송산리와 능산리 능원은 왕가의 능원이라 할 수 있다. 설정된 능원에 왕과 왕비, 그리고 그와 가까운 인물만 매장되

었음은 철저한 가족장제이다. 다만 아직 송산리 능원에서는 왕과의 관계가 좀 먼 인물의 매장구가 확인되지 않으나 능산리에서는 그러한 매장구가 바로 전면 방향으로 좌측(동측)에서 발견되고 있어 다르다. 이러한 장제는 중국 남북조의 취족이장이라는 세가대족의 묘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제도가 남북조에 유행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북위(北魏) 대동(大同) 방산(方山) 풍태후(馮太后)의 영고릉(永固陵)과 효문제(孝文帝)의 수릉 만년당(万年堂)(大同市博物館 外 1978)은 긴 능선의 남북에 열을 지어 분포한다. 또 남조의 경우 『건강실록(健康實錄)』 등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가족 장제를 시행하였음이 특징이다.(羅宗眞 2001: 97) 또 동진대의 남경 노호산(老虎山) 안씨(顏氏)묘군(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1957), 상산(象山) 왕씨(王氏)묘군(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1965, 南京市博物館 1972), 여가산(呂家山) 이씨(李氏) 가족묘군(南京市博物館 2000)과 강소 의흥(宜興) 주씨(朱氏)묘군(羅宗眞 1957, 南京博物院 1977) 등의 예가 증명하듯 위진남북조시기 세가대족 역시 가족장을 많이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중 특히 상산 왕씨 가족묘군의 경우 백제 송산리와 능산리의 것과 아주 유사하다.

이러한 가족장제는 신라 서악동 능원에서도 관찰된다. 왕릉이나 왕비릉으로 추정되는 서악동 1~4호분은 종으로 일렬을 이루며 분포되었고, 공동의 배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능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가족장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능원의 전면 방향으로 좌측에 매장구가 따로 성립되어 있는 점에서 능산리의 능원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능묘들은 일렬로 분포하는 점, 왕릉만 군집시킨 것에 해당하여 횡으로 배열하고 매장 성격의 능묘를 함께 배치한 송산리나 능산리의 왕가능원제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서악동의 지형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

능성도 있다. 서악동의 왕릉이 들어선 능선이 좁고 길게 뻗은 지형적 특징 때문에 풍수에 가장 적합한 이 능선에 왕릉만 군집시키고, 따로 그 좌측 능선에 배장구를 설정하여 능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⁰⁸ 그러나 북위 방산(方山)의 영고릉과 만년당의 배치가 서악동의 배치와 같고, 후술하는 낙양의 북위릉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서악동 능원의 경우는 남조 영향이 아니라 북위 영향을 짐쳐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림 4 】 방산 능원 (大同市博物館 2007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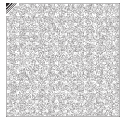
대동 방산 북위 풍태후(490년 몰)의 영고릉과 효문제의

수릉 만년당(大同市博物館 外 1978) (그림 4)은 긴 능선의 남북에 열을 지어 분포한다. 여기서 긴 능선의 후면, 즉 만년당의 뒤편에는 넓은 공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약 효문제가 낙양으로 남천하지 않았다면 후대의 능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 이 능원의 기획 시 북위의 후대 황제릉을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효문제의 남천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⁰⁹ 따라서 배장묘 없이 능만을 열을 지어 군집시킨 서악동 능원의 제도는 이 방산 능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같은 위진남북조의 영향이 백제의 송산리와 능산리, 신라의 서악동 능원에서 찾을 수 있으나 백제의 것은 좀 더 남조의 성격에 가까워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라의 것은 북위의 요소가 강하게 작동되었고, 재래의 계세사상적인 요소가 백제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송산리 능원과 능산리 능원에서 능묘의 배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송산리에서는 배장묘를 왕릉의 전면에 배치하였으나 능산리에서는 후면에 배치한 점이 그것이다. 이 차이점은 신라 마립간기의 능묘 배치로 보아 송산리에는 아직 전대의 성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가족장제의 왕가능원과 군집능원에서 벗어나 백제와 신라는 같이 단독능원제가 시행되었다. 백제의 무왕(641년 몰)의 능과 신라의 추정 진평왕(632년 몰)의 능(전현덕왕릉)이 그러하다. 양자는 모두 약간 먼 곳의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전면 평지나 야트막한 미고지에 능원이 형성되었고, 봉분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무왕릉은 이제까지 발견된 백제 고분의 봉분 가운데는 가장 큰 것으로 그 직경이 30m에 달하고 있다. 진평왕릉으로 추정되는 전현덕왕릉도 직경이 25m가 넘어 이전의 서악동 능원 왕릉들보다는 작지만 이후 신라의 왕릉들보다는 훨씬 큰 특징

⁰⁸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종렬로 배치된 권문세가의 가족묘지로는 진의 평서장군 주처(周處)와 그의 가족 묘원을 들 수 있다(김용성 2012: 686).
⁰⁹ 남천 후 북위의 황제릉은 수당 낙양성의 북서쪽 망산지구에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효문제의 장릉(長陵: 499), 선무제의 경릉(景陵: 515), 효장제의 정릉(靜陵: 530) 순으로 각각의 능선 석물을 가진 개별 능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배장분들이 각 황제릉의 후면과 좌측에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아직 가족장제적인 특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을 가진다. 이들 단독능원제는 수와 당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살았던 신라 진평왕과 백제의 무왕 시기는 중국의 경우 당초에 해당한다. 중국의 능원제에서 당의 제도가 확립되어 정착되는 당 태종(649년 몰)의 소릉(昭陵)에 앞서서는 먼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평지에 봉분을 세우는 제도가 채택된 것이 확인된다. 예컨대 수 문제(581~604)의 태릉(泰陵)(羅西章 1985)은 독립된 능원에 해당하며 위수(渭水)의 북안에 종남산(終南山)을 위시한 산지를 배경으로 한 관중평원에 방대형의 봉토를 축조한 것이고, 당 고조(618~626)의 헌릉(獻陵)은 수의 제도를 이어 북산산맥의 전면역시 관중평원에 속하는 형산원(荊山原)이라는 평탄지에 독립된 능원을 가진 방대형 봉토분으로 조성되었다(來村多加史 2001: 156~157). 이후 당의 소릉부터 황제릉은 산체를 능충으로 하는 의산위릉(倚山爲陵)의 형식으로 변화하여 정착된다. 그러나 당의 능원제도가 정착된 후에도 일부의 능은 봉분으로 축조된 것이 있다(장릉, 단릉 등). 수와 당초 이 제도는 남조의 황제릉이나 세력가문의 가족묘제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무왕릉과 진평왕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전현덕왕릉과 너무도 유사하다.

한편 송산리의 능원에는 두 곳의 제의시설이 존재하고, 능산리의 능원에 능사가 설치된 것도 백제 능원의 한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송산리 능원의 제의시설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특히 계단식 적석총형의 동북부 시설(D지구)은 단(壇) 종류의 제사시설로 볼 수 있고, 남부의 시설(A지구)은 그 위치로 보아 여러 왕릉을 위한 공동의 배례와

관련된 시설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중국 남조 종산(鍾山) 단류 건축을 닮았다.¹⁰ 다만 종산의 것은 커다란 석축의 계단식 기단 위에 네 개의 방대형 토축단을 배치한 것이나 능산리의 것은 하나만 배치되어 다를 뿐이다. 종산의 건축지는 도성의 북교단(北郊壇)으로 추정(南京市文物研究所等 2003)되고 있는데, 불교와 관련된 계단(戒壇)(張學鋒 2006)으로 보기도 한다. 백제의 이 시설은 조묘(祖廟) 성격의 묘단(廟壇) 시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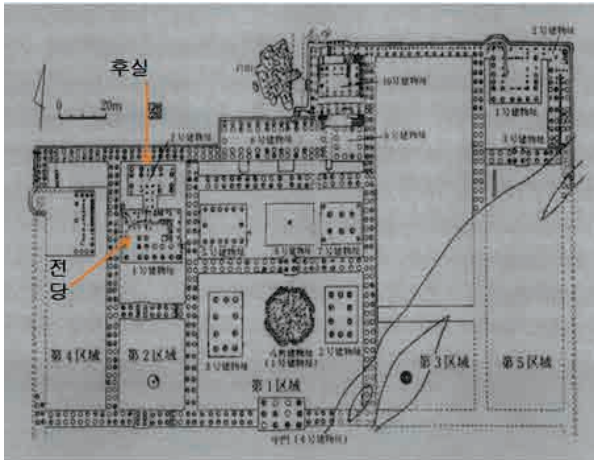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고구려의 전동명왕릉 능원이다. 전동명왕릉이 평양에 재건된 동명왕릉(강인구 2002: 139)인지 아니면 남천한 첫 왕인 장수왕릉(조영현 2004)인지 불명확하지만 만약 동명왕릉이라면 평양으로 천도한 후의 시조묘로 축조되어 무덤(墓)과 사당(廟)의 성격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수왕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의 정릉사가 마치 종묘와 사찰을 합한 배치 형태로 보이는 것이 그 중좌의 하나이다.¹²

정릉사(그림 5)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심은 제1구역과 제2구역이다. 이 두 개의 구역은 회랑으로 둘러싼 각각 하나의 원락을 이루고 있다. 제1구역은 전면 중앙에 팔각형의 탑이 자리하고, 그 좌우에 곁채(2호와 3호 건물지)가 배치되었다. 이를 회랑으로 구분한 후면의 공간에는 금당으로 추정되는 3기의 건물지(5·6·7호)가 나란하게 배열되었다. 따라서 이 원락은 사찰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 좌측에 배치된 제2구역 원락은 정원인 빈 전면 공간과 건물이 배치된 후면 공간을 회랑으로 구분하고, 후면 공간 뒤에 비교적 큰 건물(1호 건물지)을 배치하였다. 이 건물은 앞에 방향에 가까운 큰 건물을, 뒤에 장방형의 좁

10 송산리의 이 축조물은 3단의 계단 위에 원형의 토축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조유전 1991: 58)되었으나 제1단 상면 너비(1.8m)보다 제2단 상면 너비(2.24m)가 넓은 점으로 보아 제2단까지가 계단식 기단이고 그 위에 돌레를 호석식으로 돌아가며 석축한 방대형의 토축부를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축부에서 묘(墓)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 단류의 축조물로 볼 수 있다.

11 백제의 시조묘가 한성에 있었을 것이기에 남천 후 실지한 곳에 있는 시조묘에 제사를 시행할 수 없어 이곳에 시조묘를 재건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는 “온조왕 20년 2월에 단(壇)을 베풀고 천지에 제사하였다”고 하였고, 시조 동명묘(東明廟)에 여러 왕이 배알한 기사가 있다. 남천 후의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한 의례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동성왕 11년에 “동 시달 단을 베풀고 천지에 제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서정석 1995: 54)으로 볼 수도 있겠다.

12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고구려가 남천한 이후 안장왕, 평원왕, 영류왕 때에도 졸본의 시조묘에 제사하는 등으로 보아 장수왕릉설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동명왕릉의 동북에 배치된 고분들을 배장분으로 보면 장수왕릉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하더라도 장수왕이 남천한 첫 왕으로서 중시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는 시조묘적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정릉사는 방산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묘(祠廟)와 사찰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림 5】 정릉사의 배치

작은 건물을 배치했으며 이를 회랑으로 연결하여 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건물 배치는 종묘로 알려진 중국 섬서(陝西) 기산(岐山) 봉추(鳳雛) 서주(西周) 갑조(甲組) 건축(楊鴻勛 2009: 90)을 꼭 빼닮았다. 봉추 갑조 건축은 이과식(二顆式) 사합원(四合院)으로 불리며 전면 건물은 전당, 후면 건물은 후실로 여겨지고 있어 의례용 건축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릉사는 실제 동측의 사찰과 서측의 사묘가 결합된 건물 배치로 후술하는 북위 방산의 영고릉 전면의 사묘(영고당)와 사찰(사원불사)을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릉사의 사묘로 보아 송산리의 D지구 단류 건축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불교적인 시설물(임영진 2013: 155)로 볼 수도 있으나 그 형태와 능묘들 상면에 위치, 능원 전면 배치된 공동 배례 시설물(A지구)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시조묘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 신라의 능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단류의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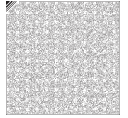
능산리 능원에는 전면 방향으로 우측에 능사가 축조되어 제의를 담당하고 왕의 명복을 빈 것이 확인된다.¹³ 서악동 능

원에도 같은 방향에 애공사 혹은 영경사로 불리던 사찰이 존재하여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능원에 사찰을 조영하여 선조의 명복을 빌고 제의를 담당하게 한 능원제도는 북위 방산의 능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고구려의 정릉사도 전동명왕릉 전면 배치되어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관찰된다.

방산 능원은 앞에서 설명한 영고릉과 만년당으로 구성된 능침의 전면에서 사묘(祠廟)영고당(永固堂), 사원불사(思遠佛寺), 재당(齋堂)영천궁(靈泉宮)을 결합시켜 후대 능구에 불교 건축 축조의 시원이 되었다. 이는 풍태후가 한족의 제도와 신비의 제도를 결합시켜 새로운 능침제도를 창조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張之恒 2009: 455). 이러한 사실은 성왕의 사후 백제가 신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고구려와 좀 더 밀착되면서 고구려로 유입되었던 북위적 문화 요소가 백제로 들어온 결과로 보인다. 즉 신라의 서악동 능원과 같이 사찰만 따로 떼어 능원의 우측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묘는 고려되지 않은 대신 후술하는 배례공간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산리 능원의 군집된 능묘 하단인 전면에는 배례공간으로 볼 수 있는 평평한 공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송산리 능원의 전면 배치된 제의시설과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체 능원의 능묘를 대상으로 한 배례공간은 서악동의 네 왕릉급 고분 전면에도 존재한다. 이는 신라나 백제나 능침의 전면에는 헌전(獻殿) 등의 제사를 위한 건축물을 세우지 않고 공간만 마련하여 능묘에 대해 노천 제의를 시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제도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서악동 능원과 같이 개별 왕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능원 내 전체 능묘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¹³ 능산리사지는 유교식 오제제사를 위한 건물로 축조되었다가 성왕을 추복하는 기능의 불교사원으로 변화했다(이장웅 2010: 52)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 정릉사와 유사한 성격이 된다. 또 신라의 경우 애공사나 영경사의 구조를 알 수 없으나 중대 황복사탑 사리함의 '宗廟聖靈禪院伽藍'이란 표현도 사묘와 사찰 또는 사묘와 불탑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맺음말

백제의 능묘와 능원의 연구에서 문제점은 도굴이 쉬운 백제 묘제의 성격 때문에, 그리고 멸망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무령왕릉이 제대로 남아 있어서 그 단초를 이해할 수 있고, 비록 도굴되고 파괴되었으나 대부분 능묘의 내부가 조사되어 그 묘제라도 알 수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점이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백제 능묘와 능원의 특성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적석총이 능묘로 채택되던 한성기를 지나 금강유역으로 천도 후 능묘는 송산리식의 황혈식석실묘 → 남조식의 전실묘 → 능산리식의 황혈식석실묘로 변천하였다. 송산리식 황혈식석실묘는 한성기 지방 묘제를 수용하여 정형화한 것이고, 능산리식 황혈식석실묘는 전 시기 전실묘를 본뜬 과도기를 거쳐 형성되었다. 이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천장 구조의 변화이다. 천장은 궁륭천장(송산리식) → 터널천장(전실묘와 능산리식 과도기) → 집지붕천장(능산리식으로 제형, 삼각형, 평천장 세 종류의 형식)으로 변천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능산리식 황혈식석실로 이는 백제에서 창출된 특수한 형식이다. 이 형식의 축재 또한 신라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송산리와 능산리 능묘에는 각각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등장하였다. 이 벽화는 전실묘와 함께 남조에서 유입된 것이고, 일정한 시기인 송산리 후기와 능산리 초기에 특수한 신분 인물의 무덤에 그려진 것이다.

백제의 능묘는 봉분을 중시하지 않아 처음에는 봉분이 현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실묘가 축조되는 무령왕릉에 이르

러 봉분이 무덤의 표지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능산리로 이어져 지속되나 그 크기는 신라에 비해 작았다. 이는 개별 능묘를 과시하여 표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능원의 영역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고 역시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능원의 특성은 먼저 백제가 남천한 후의 왕가의 능원에서 단독의 독립능원으로 변천한다. 전자는 송산리와 능산리의 능원이고, 후자는 익산의 쌍릉이다. 전자는 완벽한 풍수지리와 함께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중국이 재통일된 수와 당초의 능원제 영향이다. 왕가의 능원에는 왕릉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 있는 인물을 매장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능산리 능원에서는 좀 더 거리가 먼 왕족이나 최고 귀족을 위한 배장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백제 능원이 비록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나 백제만의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능원에는 제의시설이 존재했다. 송산리 능원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조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단의 형식은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능원의 내부에 이를 설치하여 명확한 성격을 드러낸 것은 백제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또한 능원의 전면에는 석축의 공동의 능묘에 대한 제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이은 능산리 능원에는 공동의 능묘에 대해 제의를 시행할 수 있는 노천의 제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 제의를 담당하면서 선왕에 대한 명복을 빌기 위한 능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나 구조는 신라의 서악동 능원과 아주 유사하다. 능사가 설치되는 제도는 북위에서 고구려로, 다시 백제와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백제와 신라는 이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노천제사 등 나름대로 전통적인 방식에 융합시켰다.

참고문헌

- 강인구, 2002, 『고분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서울: 일지사
-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왕릉의 고고학』(都出比呂志 지음), 서울: 진인진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부여 능산리 공설운동장 신축예정부지 백제고분 1·2차 긴급발굴조사보고서』
-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서울: 돌베개
- 권오영, 2002, 「상장제를 중심으로 한 무령왕릉과 남조묘의 비교」 『백제문화』 제31집,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김용성·강재현, 2012, 「신라왕릉의 새로운 비정」 『아외고고학』 제1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용성, 2012, 「경주 서악동 능원과 그 의의」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기념논총 인류학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 김용성 역,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黃曉芬 지음)』, 서울: 학연문화사
- 김용성, 2005,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
- 서정석, 1995,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 제24집,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성정용, 2011, 「백제 한성기 석실묘의 양상」 『회정 최몽룡 교수 정년퇴임논총(Ⅳ) 21세기의 한국 고고학Ⅳ』, 서울: 주류성출판사
- 윤근일, 1988, 「공주 송산리 고분발굴조사 개보」 『문화재』 21호, 문화재관리국
- 이남석, 2002, 『백제 묘제의 연구』, 서울: 서경
- 이남석, 1995, 『백제 석실분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 이장웅, 2010, 「백제 사비기 오제 제사와 능산리사지」 『백제문화』 제42집,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이훈, 2013, 「백제 능묘의 특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임영진, 2013,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중국 능묘의 비교」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조가영, 2013, 「석촌동고분군의 재인식과 해석」 『제13회 백제학회 정기발표회 한성기 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 백제학회·한성백제박물관
- 조영현, 2004, 「전동명왕릉의 묘주 비정」 『과기고고연구』 10, 아주대박물관
- 조유전, 1991, 「송산리 방단계단형 무덤에 대하여」 『백제문화』 21,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01, 「백제고분과 익산 쌍릉」 『마한·백제문화』 15, 원광대미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1997, 『금강유역 백제고분의 연구』, 송실대 박사학위논문
- 허일관, 2012, 「달성 쌍계리 횡혈식석실분의 목관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인류학고고학 논총』, 서울: 학연문화사
- 羅西章, 「隋文帝陵, 祠勘査記」 『考古與文物』 1985年 第6期
- 羅宗眞, 2001, 『魏晉南北朝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 羅宗眞, 1957, 「江蘇宜興晉墓發掘簡報」 『考古學報』 1957年 第4期
- 南京博物院, 「江蘇宜興晉墓的第二次發掘」 『考古』 1977年 第2期
- 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南京象山東晉王丹虎墓和二, 四號墓清理簡報」 『文物』 1965年 第10期
- 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南京老虎山晉墓」 『考古通訊』 1957年 第6期



- 南京市文物研究所等, 「南京鍾山南朝壇類建築遺存1號壇發掘簡報」『文物』2003年 7期
- 南京市博物館, 「南京呂家山東晉李氏家族墓」『文物』2000年 7期
- 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5號, 6號, 7號墓清理簡報」『文物』1972年 第11期
-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思遠佛寺遺址發掘報告」『文物』2007年 第4期
- 大同市博物館 外, 「大同方山北魏永固陵」『文物』1978年 第7期
- 楊鴻勛, 2009, 『宮殿考古通論』, 北京: 紫禁城出版社
- 韋正, 2011, 『六朝墓葬的考古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張之恒, 2009, 『中國考古學通論』,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張學鋒, 2006, 「論南京鍾山南朝壇類建築遺存的性質」『文物』2006年 第4期
- 輕部慈恩, 1934, 「公州に於ける百濟古墳(三)」『考古學雜誌』24-3, 日本考古學會
- 關野貞, 1915, 『朝鮮古蹟圖譜解說』, 朝鮮總督府篇
- 關野貞·黑版勝美 1915, 『朝鮮古蹟圖譜』3, 朝鮮總督府篇
- 來村多加史, 2001, 『唐代皇帝陵の研究』, 東京: 學生社
- 梅原末治, 1938, 「夫餘陵山里東古墳群の調査」『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調查研究會
- 野守建 外, 1935, 「公州宋山里古墳調査報告」『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調查研究會
- 野守建·小川京吉, 1920,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篇

A Study on the Latter Baekje Dynasty Royal Tombs and Boundary of the Royal Tomb

Kim Young-sung

Expert Advisor, Hanbit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Abstract

The royal tombs of Baekje(백제),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the Geumgang(riv)(금강) basin, changed to Songsanri(송산리) style(stone chamber) → Southern dynastic(남조) style(brick chamber) → Neungsanri(능산리) style(stone chamber). The most special feature of this process is the change of the ceiling structure. The ceiling had been changed from dome(Songsanri style) → tunnel ceiling(transition period of brick tombs and Neungsanri style) → a roof style(is Neungsanri style of three imitate type, trapezoid, triangle, flattened ceiling). The most special feature among this process is Neungsanri style(stone chamber), created especially in Baekje. The royal tombs of Baekje didn't lay stress on the mound, so the mound is not noticeable. It is result that they more stressed on basin of the boundary than showed off individual tomb, and this is count as an element of China Southern dynasty.

Boundary of the royal tomb of Baekje,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south, were changed from royal family's boundary to single independent's. Those are Songsanri's and Neungsanri's, these are the pair tombs(쌍릉) of Iksan(익산). That is influence of the Southern dynasty, reflect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completely, this is influence of the China Sui(수) and the early Tang(당) dynasty's system of boundary of the royal tomb. Besides the royal tomb, they also buried a closely related person, in the boundary of the royal tomb. And facilities for memorial ceremony were existed too. An altar was equipped in Songsanri's boundary of the royal tomb, it was seen a kind of character of a sanctuary for progenitor. Neungsanri's boundary of the royal tomb were equipped with an open-aired altar that performed memorial ceremony about communal royal tombs, and also equipped a temple, was needed to pray for the happiness of the dead. This structure and arrangement are very similar to Seoakdong(서악동) of Silla(신라).

Key Words Songsanri, Neungsanri, the pair tombs, royal tombs, boundary of the royal tomb, Seoakdong